

1 화 빛 과 속 음

교회 다니면서 코인해도 된다 vs
주님만이 나의 우량주. 고로 코인은 안 된다



아이패드를 사야한다며 세상 못난 얼굴로 코인 중인 종갓집 딸 김소금. 그런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짝사랑하는 목사님 아들 박광이 있다. 잠시 후, 코인이 떨어졌다면 좌절하는 김소금에게 박광은 전도 아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아이패드 주는데, 올래?”

긴가민가하면서도 박광의 말을 믿고 21년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김소금. 새로운 환경에 설레기도 잠시, 김소금은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성경 골든벨 우승 상품 : 아이패드’ 포스터를 보게 된다. 원망의 눈으로 박광을 쳐다보지만 아랑곳 않는 박광의 태도에 니를 믿은 내가 잘못이라며 교회를 나가려던 그때,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밝은 빛…! 혹시 이걸, 말로만 듣던 지저스…?

“안녕? 처음 보는 친구네?”

운명을 만났을 때 종소리가 들린다고 했던가? 단번에 사랑에 빠져버린 김소금의 귀에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번갈아 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소금을 홀린 이요셉은 홀연히 기도실로 사라져버렸고…

“야… 나 방금 주님이라는 우량주를 찾은 거 같아… 오늘부터 내 코인은 주님께 몰빵이다…”

이요셉과 김소금 사이의 일방적이고도 미묘한 흐름을 눈치 챈 박광.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결국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뱉고 마는데…?

“너 저 형 스타일 아니야. 저 형 이상형 성경 골든벨 1등하는 여자야.”

“그럼 1등하면 저 오빠도 사귀고, 아이패드도 가질 수 있는 거네? 오히려 좋아.”

아무래도…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가 이 드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가이드

1화에서 박광과 김소금이 만날 때, 소금은 비트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재테크는 주식과 비트코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투기성 투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마치 도박과 같아서, 이익을 얻을 확률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이지요. 소금이라도 신형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하지만, 결국 떨어지기에 좌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단발성 비트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는 과연 성경적으로 괜찮은 방법일까요?

또 한가지, 박광이 소금을 전도할 때도 골든벨 상품인 '아이패드'에 중점을 둡니다. 소금이 움직인 것은 잘생긴 교회오빠 요셉이의 등장이었지만 말이죠. 지금과 같은 시대에, 아무 이득도 없이, 복음만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해보이기 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전도할 사람이 좋아할 물질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나눔을 위한 질문

1 투자

내 주변에 주식 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나는 그곳에 투자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재정

내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올바른 재정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전도

내 가족, 혹은 지인을 전도할 때에, 나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돈을 들이지 않는 전도가 가능할까요?

2 화 갈라지소서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였나요. 주님?



다시 돌아온 주일. 김소금은 한 주 만에 교회에 적응한 듯하다. 당장에 예배 끝나고 하품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기지개까지 펴며 ‘요셉 오빠’를 찾는 김소금의 모습에 박광은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지만,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 이요셉이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다.

“오빠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같이 먹으러 가요!”

누구 맘대로...! 안 그래도 이요셉이 김소금 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불안한데... 자꾸만 김소금에게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전하던 이요셉은 이젠 어깨동무까지 하려고 한다. 진짜 이건 못 참지. 조선은 모름지기 남녀칠세부동석 아니라 했던가? 박광은 재빠르게 김소금을 밀쳐내는데...?!

“오랜만에 형이랑 걸어가니까 좋네요.”

남자의 질투는 끝이 없다 했던가. 식당에서도 박광은의 질투는 끝나지 않았다. 이요셉 옆에 앉으려는 김소금을 밀쳐내고 이요셉의 옆자리에 앉은 박광. 김소금이 패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곧 무시할 수 없는 대화가 들려오는데...

“소금아 교회 와보니까 어때?”

“상상이랑 좀 달라서 놀랐어요. 다들 홀리할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사는 거 똑같구나 싶던데. 아 근데 그건 좀 충격. 사도신경인가 그거 외울 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던데 그럼 예수님은....”

필터링 없는 김소금의 말에 박광은 당황했다. 문제는... 이요셉은 자연스럽게 웃어 넘겼다는 것.

그렇게 둘만의 대화장이 형성됐다. 사람은 셋이지만 대화는 둘만 하는 이 상황... 박광은 달갑지 않다.

“저 오빠한테 성경 배울래요! 저 오빠, 아니 아이패드도 필요한데 박광은 과외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 어려울 건 없지. 내가 재밌게 가르쳐줄게~”

주님께선 분명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그리고, 대체 왜 사귀지도 않는 여자한테 스킨십하지 말라는 게 명은 적어두지 않으셨어요...?

가 이 드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가이드

2화의 포인트는 김소금과 이요셉의 스킨십을 보며 필사적으로 막는 박광의 질투입니다. 교회 내에서 만나는 남녀 청년들이 모일 때면, 친밀함의 표시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거나 어깨를 톡톡 친다던지 하는 스킨십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민감해진 성인지각수성으로 인해서 남녀 서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조심하고, 또 교회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선을 정확히 명시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간에 썸이나, 연애를 할 때는 스킨십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 걸까요?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교회 안에서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부분은 늘 조심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크리스천의 이성교제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스킨십은 어디까지일까요? 스킨십 뿐만 아니라 같이 조심해야 할 것은 질투와 시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몰래 내가 마음으로 짝사랑하는 상대가 다른 사람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일 때, 질투와 시기는 내 마음을 폭풍처럼 요동치게 만들지요. 이런 때에 과연 나는 질투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나눔을 위한 질문

1

이성교제

같은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할까요? 아니면 비밀연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기준

내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크리스천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하는게 옳을까요? 요즘 세상의 트렌드와는 너무나 보수적인 기준이라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마음가짐

만약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혹은 그 대상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질투와 시기로 힘들어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3 화 바리새인

신실 해 보이던 교회 오빠의 실체



성경 공부 시작과 함께 같이 시작된 기묘한 삼각관계. 이런 상황이 불편할 법도 하지만 다들 꽤 진심(?)으로 공부 중이다. 박광도 나름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그랬다.

“잠깐 쉴까? 난 잠시 나갔다 올게.”

이요셉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소금은 습관처럼 핸드폰을 꺼곤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 타임라인에 떠있는 이요셉의 게시물들을 보곤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를 누르면서 말이다. 박광은 그런 김소금이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넌 대체 그 형 어디가 좋냐?”

잘생김, 훌리함, 그리고 간지. 고민 없이 내뱉는 김소금의 대답에 박광은 중얼거리며 부서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한다. 그러나 화장실에선 이요셉이 거울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심지어 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저 양반 인스타그램엔 말씀 밖에 없었는데...?

이요셉의 부계는 박광에게 완전 책꽂이였다. 이요셉의 훌리함을 좋아한다던 김소금에게 이요셉의 이미지를 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박광은 빠르게 부서실로 돌아갔다. 얼른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야 박광, 이 오빠 술도 마실 줄 알더라? 완전 반전 매력 개쩔어...!”

하지만 김소금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요셉의 부계정까지. 박광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그러나 이해가 안되긴 김소금도 마찬가지. 아니 이게 뭐가 어때서. 부계정 있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인가?

“너 취향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뭔 말을 그렇게까지 해? 내 취향에 니가 보태준 거라도 있어?!”

두 사람의 우정에 빠드득- 금 가는 소리가 들렸다. 고작 ‘인스타그램’ 때문이었다.

가 이 드

바태복은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15장 7-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가이드

3화에서는 본격적으로 박광, 김소금, 이요셉이 성경골든벨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광이 인스타그램에서 이요셉의 부계정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이요셉의 실체를 김소금에게 알리지요. 이요셉의 일상은 겉으로는 완벽한 교회 오빠요, 골든벨 우승했을 정도로 성경에 박식한 모습과 자기 과시, 술자리, 노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 청소년들은 SNS를 할 때, 본계정 말고 또 하나의 계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를 '부계를 판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SNS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본인의 사생활을 들키지 않고 공유하고 싶을 때. 또는 본인이 팔로우 하고 싶은 사람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부계정은 은밀하게 존재합니다.

혹시 우리에게서 이러한 마음이 없을까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죄를 짓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장소에서는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부계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트렌드이기에, 그게 어째서 문제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 교회 안에서 보여 지는 모습만 거룩하고, 일상의 삶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나눔을 위한 질문

1

이중성

사람마다 이중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중적 모습은 어떤 부분일까요?

2

나의 모습

나는 예배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 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마음껏 하는 편 인가요? (ex. 소리 내어 찬양하기, 기도하기, 일어나 서 박수치며 찬양하기 등)

4 화 아프다 함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의 최후



다시 돌아온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보이지 않는 김소금의 모습에 박광은 자신과 싸운 거 때문인가 생각하지만, 사실 김소금은 침대에 누워 끄끙 앓고 있다. 차마 박광한테 연락할 용기는 없어서 이 요셉에게 연락을 하는데,

“안 그래도 방금 전화 왔는데 소금이 오늘 아파서 못 온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얘기해줬어”

이요셉의 말에 김소금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박광. 김소금이 아프다고…? 그 시각. 김소금은 이불을 말아 침대에 누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요즘 세상 좋아졌네.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러면 왜 다들 교회에 가는 거지?”

예배가 끝나고, 몸이 조금 편찮아진 김소금은 일어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도 마시고 소파에 널브러지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 박광 애는 나 아프다는 거 못 들었나? 왜 연락이 없지?

핸드폰을 들고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는 김소금. 그러던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어리둥절하며 문을 열어보면…. 숨을 몰아쉬며 서있는 박광.

“너 아프다며, 괜찮냐 해서 와봤지.”

그런 박광의 모습에 감동 받는 것도 잠시, 곧 김소금은 박광의 눈치를 살피는데….

“근데 웃은… 예배 끝나고 갈아입은 거지?”

“아니? 이러고 드렸는데? 그야 아, 아프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박광은 고민하다가 너도 당해 보라는 식으로 그냥 냅다 현관에 드러눕는다.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김소금은 박광의 팔을 잡지만… 이내 미끄러지며 박광의 위에 넘어지고 마는데!?

그녀의 코 앞에 그의 코가 있었고, 그녀의 입술 앞에 그의 입술이 있다. 묘한 분위기 속 동시에 꿀꺽 넘어가는 침… 박광의 시선이 김소금의 입술로 천천히 내려가는데….

가 이 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가이드

4화에서는 박광과 김소금의 로맨스가 중점인 것 같지만, 실은 예배의 자세에 대한 주제입니다. Covid19로 인해 어느덧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초반에는 집이라도 옷을 갖춰 입고, 정시에 접속하여 찬양도 따라 부르고, 열심히 설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편한 복장, 편한 자세, 음식을 먹으며,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다시 접속해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자기합리화가 이루어졌지요.

그런 편한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다시 교회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은 한편으로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옷도 갖춰 입고, 지각도 하면 안되니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나요?

나눔을 위한 질문

1

자세

나의 경험에 비추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임하는 마음 가짐 및 태도는 어떠했나요?

2

걸림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속, 시험, 아르바이트, 직장등의 상황으로 인해 예배를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예배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5 화 애 애 미 야

명절에 제사를 안지내도 된다고?!



어색한 공기가 맴도는 부서질 안. 묘한 분위기 속 들리는 소리라곤 성경책 넘기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 뿐이다. 별 일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키스는 커녕 보보도! 없었지만... 그 묘했던 분위기와 시선처리를 어쩔 셈인가?

“다들 일찍 왔네?”

타이밍 좋게 등장한 이요셉. 박광과 김소금은 이 순간 이요셉이 너무나도 반갑다. 그런 반가운 이요셉을 자신들의 중간에 앉히고 열심히 공부 중인 세 사람. 골든벨도 2주 밖에 남지 않아 정말 말 한 마디 없이 공부 중이다. 그때 울리는 김소금의 핸드폰. 발신자를 확인해보면 엄마다. 전화를 받지 않고 핸드폰을 뒤집는 김소금. 왜 받지 않냐 물어보면, 제사 때문에 오라는 거라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

“말이 나와서 궁금한 건데, 요셉 오빠랑 박광은 혹시 제사 안 가는 꼴 팁 같은 거 없어요?”

“제사?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 같은 거 없는데...”

제사가... 없다고...? 김소금은 상상했다. 이요셉과의 결혼 생활을. 아니 사실 이요셉인 줄 알았지만 박광과의 결혼생활을 상상했다. 자신의 상상에 자신도 놀라 경악하는 김소금. 때마침 핸드폰이 다시 울리고, 김소금은 못 이기는 척 전화를 받는다.

“지금 하는 제사도 힘들어하면 나중에 시집갔을 때 어쩌려고 그래!!”

“뭐!! 난 제사 없는 집에 시집 갈 거거든?!”

“그런 집이 어디 있냐?!”

“있어! 있다고! 있...”라고 하며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박광. 김소금은 스스로의 시선과 생각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부서실을 뛰쳐나가고 마는데...

남겨진 박광과 이요셉. 김소금의 탈주에 적잖이 당황하긴 했지만 이내 다시 공부를 이어나간다. 몇 분이 지났을까. 필기하던 손을 멈추고 박광을 부르는 이요셉.

“광아, 소금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

가 이 드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가이드

5화에서 김소금의 어머니가 목소리로 등장합니다. 사실, 김소금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갓집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짜증을 내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어디 있냐고는 하지만, 꼭 제사가 아니더라도 타종교나, 미신, 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가정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 크리스천으로서 그러한 타종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2021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종교에 대한 인식에서 비종교인이 생각한 가장 호감있는 종교는 불교 (20%), 가톨릭 (13%), 개신교 (6%) 순이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고, 여유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개신교의 수준은 너무나 낮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개신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사를 지내는 것 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의 모습

모태신앙 또는 교회를 다닌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미신적인 부분을 믿고, 타로점이나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나의 고백

타종교인과 대화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6 화 앳 술 을 …

사 랑 에 취 하 는 것 도 죄 가 되 나 요 주 님 ?



최근 들어 김소금이 이상하다. 박광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웃는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김소금 스스로도 본인이 이상한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게 무슨 감정인지는 아직 모르는 눈치다.

그래서 오늘은 색다르게 카페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너 옷 뭐냐?! 나 따라 입었냐?!!”

회색 후드티에 연한 색상의 청바지. 커플룩 아닌 커플룩 느낌의 옷을 입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싫은 척 하지만 둘 다 속으론 내심 좋아하고 있다.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수줍은 듯 웃으며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는 박광. 김소금은 긴장한 듯 침을 삼킨다. 애… 나한테 고백? 같은 거 하려는 건가? 하며 기대하지만, 박광이 꺼낸 건 웬 서류 봉투인데….

“이게 뭐야?”

“족보.”

그렇게 박광이 가져온 족보로 공부를 시작하는 두 사람. 김소금은 자신이 방금 박광한테 왜 기대했던 건지, 내가 정말 애를 좋아하는 건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젠 정말 인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박광의 핸드폰이 세차게 울리고, 수화기 너머 김소금에게 까지 들리는 통화 내용들.

“그야 니가 김소금 좋아,”

“그래!! X같다고 했지!!! 근데 이젠 아니야!!!”

뭐 XX? 분노한 김소금이 박광에게 화를 내려는데, 타이밍 좋게 울리는 김소금의 핸드폰. 발신자를 확인해보면 이요셉이다. 이 오빠가 왜 나한테 전화를… 이라며 당황스럽다는 듯 전화를 받으면, 이요셉이 한껏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교회 오빠… 이거 맞아? 근데 왜… 박광이 더 화를 내는 걸까…? 재도 진짜 나를…. 혹시 주님… 사랑에 취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가 이 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가이드

청년들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술입니다. 가
볍게 한잔, 식사하고 한잔, 친구들과 한잔, 회사에서 일
 끝나고 회식하며 한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술은 관계의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술 문제는 꽤 어려
운 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도 되는가? 담배 피도 되는가? 클
럽 다녀도 되는가? 그러면 반대로, 술 안마시면 호프집에
가도, 클럽을 가도, 괜찮다는 말인가? 가볍게 집에서 넷
플릭스 보면서 맥주 한 캔 하는 것은 괜찮은가? 완벽한
금주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최상의 태도일까요?

어느 상황까지 술은 허용되는 것일까요? 사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
는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길은, 늘 갈등과
분투 속에 십자가를 보며 힘겹게 한걸음 옮기는 십자가
의 길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생각 해 보기

술을 접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2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술에 대한 기준점은, 현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입니
다. 나는 술에 대해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내 신앙 기준에 따라 당당 할 수 있나요?